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기원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오늘 ‘두 간호사 영상 후기 공모전’ 결과 발표 소록도 찾은 주한 EU 대사 “적극 홍보”... 10월 수상 여부 결정

‘소록도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 대한 선양 사업과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 홍보 활동이 활발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국경을 초월한 두 간호사에 대한 한센병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영상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랑의 40여년’ 관람 후 기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아리랑TV는 최근 다큐 영화를 방송했다.

두 간호사와 동향인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최근 고흥 소록도를 방문해 두 간호사의 헌신적 봉사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노벨평화상 후보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소록도에서 40여년간 사랑을 전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된다.

이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은 지난해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 초 노벨위원회에 후보 추천을 마쳤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노벨위원회가 현장 실사는 물론 대면 홍보활동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긍정적으로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한달간 공모한 한센병 환자들의 증언 5분 영상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랑의 40여년’의 관람 후기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공모 주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편견과 차별, 국경을 초월한 두 간호사의 ‘인류애에 대한 정신’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이다.

협회는 “이들이 보여준 숭고한 헌신은 한국 후배 간호사들에게 끈끈히 이어지는 봉사와 헌신의 DNA를 심어줬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끝까지 싸우는 강한 사명감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두 분 간호사에 찬사를 보냈다.

투병 중인 마리안느 간호사도 “환자를 열심히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해 달라”고 한국의 후배 간호사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간호사와 동향인 오스트리아 티롤주 인스부르크 출신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최근 고흥 소록도와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을 방문,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후보 홍보 활동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평소 소록도에서 43년을 한센인들과 함께 한 두 간호사의 봉사정신을 존경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동참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지난 4일 소록도병원, 한센인박물관,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과 소록도성당 등 두 간호사의 삶의 현장을 두루 방문했다.

특히 두 간호사의 삶을 담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여기에서 보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삶이 더욱 크게 와닿고, 두 분 천사의 희생봉사에 마음이 숙연

해지고 같은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남도와 고흥군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노벨평화상 수상 기원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흥군은 희생정신과 참봉사정신을 실천해 주신 두 간호사를 위해 명예도로와 사택 등록문화재 지정, 명예 군민증 수여, 1004 생활안정자금 지원, 마리안느와 마가렛 다큐 제작 및 상영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대한간호협회와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전남도 등과 함께 국내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지난 4일 미하엘 라이터러(왼쪽 두번째)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고흥 소록도를 방문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헌신적인 소록도 봉사활동 사진을 보고 있다. <고흥군 제공>



마리안느(왼쪽)와 마가렛.

오스트리아 출신...소록도서 40여 년 한센병 환자 봉사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는 누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과 1966년 각각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40여 년 간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따뜻한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

두 간호사는 맨손으로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주며

진정한 사랑과 배려,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귀감이 됐다.

두 간호사는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2005년 11월 “소록도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편지 두 장만 남긴 채 조용히 고향으로 떠나 더욱 감동을 던지기도 했다.

현재 마리안느는 대장암, 마가렛은 치매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꽃향·과일향 나는 ‘보성청차’ 배워보세요”

보성군, 트렌드 맞춘 차음료 개발 주력...17일부터 ‘청차 제다 교육’

보성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북재와 한국차박물관에서 ‘청차 제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010년부터 중국·호주 등 국내외 차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차 제품 개발을 위해 청차, 홍차, 황차, 블렌딩차 제다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는 국내 최고 제다·품질 전문가를 초빙해 제다교육과 품질교육,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보성전통차농업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해 보성차 명품화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청차 제다 교육, 10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는 차 품질평가 교육을, 10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는 전통차농업 해설사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청차는 발효차의 하나로 꽃향·과일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발효도가 약한 백차와 강한 홍차의 중간 정도로 ‘반 발효차’라고도 한다. 주로 중국 북경

성 북부의 무이산에서 생산되는 무이암차와 북경성 남부의 안계철관음차, 대만의 우롱차 등이 청차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성군은 백제시대 이전부터 사찰 주변과 미려한, 화천면, 웅치면 일대에서 자생했던 보성재래종을 주원료로 보성청차를 만들고 있으며, 국내 최고 청차 전문가와 재래종에 맞는 청차 제다 방법을 개발해 중국과 대만의 명차에 버금가는 차를 만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청차 제다법은 찻잎을 따서 뒤거나 찌서 만든 녹차나 발효시켜 만든 홍차(발효차)와는 다르게 찻잎을 따서 일정시간 햇볕이나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면서 손으로 가볍게 교반한 후, 대나무 재판에 넣고 흔들며 찻잎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미세한 발효를 유도한다.

주로 이 과정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발효를 시킨 차를 살청(殺靑)차의 산화효소의 활성을 파괴하는 것)하고 비비기와 건조 과정을 거쳐



보성군이 젊은층과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꽃향과 과일향이 나는 ‘청차 제다 교육’을 오는 17일부터 진행한다. <보성군 제공>

면 청차가 만들어진다. 청차는 향을 좋아하는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인기 있어 몇몇 다원에서 일찍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은 녹차와 홍차, 떡차의

주산지지만 트렌드에 맞춘 황차, 청차, 블렌딩차, 혼합음료 등 새로운 차와 음료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명백 기자 kyb@kwangju.co.kr

침수피해 축산농가에 미생물 9.5t 무상 공급

곡성군, 악취 제거·축사 환경 안정화 도움

곡성군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와 축사환경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내린 기록적 폭우로 축산농가에 퇴적된 축분, 사료 등이 침수되며 악취와 함께 수인성 질병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곡성군은 축사환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을 피해농가에 무상 공급할 대책을 마련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9일부터 긴급하게 배양을 시작해 공급에 들어갔다. 공급 미생물은 유산균으로 축사에 살포하면 악취제거와 오염균 우점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급기간은 축사 침수피해가 안정화될 때까지로 예상 물량은 9.5t 내외이다.

육과농협과 곡성한우협회는 왕겨를 깔고 군에서 공급된 미생물을 살포하는 등 피해복구에 힘을 보탤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G.O. 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공장**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 : 12029㎡(3638.77평) 건물 : 1929.992㎡(583.823평)
감정가 : 2,054,798,910원 최저가 : 920,550,000원(45%) 유찰 3회
- 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 2회
-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9917.4㎡(3000평) 건물 : 939.38㎡(284.2평)
감정가 : 1,758,815,640원 최저가 : 984,937,000원(56%) 유찰 2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